

우리식 사회주의 문명부흥의 새 전기를 펼친 인민사랑의 기념비 송화거리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준공레프를 꿈으시였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향도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더 밝은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인민의 역센 기상과 비상한 창조정신, 웅대한 목표실현에 용진하는 우리 국가의 비약적인 발전상을 과시하며 수도 평양의 송신, 송화지구에 인민의 리상거리가 웅장하게 솟아올랐다.

수도 평양을 주체사상과 주체문화, 우리식 문명의 중심지로, 인민의 위대한 도시로 더욱 훌륭히 전변시키려는 당중앙의 높은 뜻을 받들고 군민건설자들은 증첩되는 도전과 시련을 과감히 박차며 총성의 돌격전, 치렬한 철야전을 벌려 불과 1년사이에 80층초고층 살림집을 비롯하여 1만세대의 특색있는 대건축군을 일떠세우는 경이적인 기적을 창조하였다.

송화거리 준공식이 4월 11일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준공식장에 나오시자 축포가 터져오르고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조선로동당의 영원불멸할 정치리념, 확고부동한 정치방식으로 내세우시고 불철주야의 헌신과 로고를 바치시며 인민의 웃음과 행복넘친 사회주의리상사회를 일떠세워가시는 김정은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울리고 또 울리였다.

준공식장은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며 창조와 기적의 새시대로로 풀기차게 향도하는 당중앙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열화같은 흠모의 정으로 설레이고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김덕훈 내각총리가 준공사를 하였다.

그는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대건설력사에 준공의 벅찬 사변들은 많고 많았지만 오늘의 이 시각은 참으로 잊을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되는 가슴뜨거운 사연들을 간직하고있다고 하면서 인민이 바라고 기다리는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기어이 해내야 한다는

불같은 신조로 풀기차게 솟아오른 위대한 사랑의 기념비가 송화지구의 선경이라고 강조하였다.

김덕훈 내각총리는 온 나라의 축복속에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한 수도시민들이 오늘의 이 감격을 소중히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함에 몸과 마음 다 바쳐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송화거리 준공레프를 꿈으시였다.

순간 환희의 축포가 터져오르고 수많은 고무풍선이 날아오르는 속에 전체 참가자들은 사랑의 위대한 힘으로 인민의 락원을 가꾸시며 하늘같은 은덕을 거둬

따뜻이 손져주시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송화거리를 돌아보았다.

현대적인 80층초고층 살림집과 고가다리, 편의봉사시설 등을 보면서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인민을 위함이라면 그 어떤 고생도 달게 여기시며 위민헌신의 려정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사색과 실천의 한초한초, 날과 날들이 그대로 조국번영의 디딤돌이 되고 인민의 행복이 넘쳐흐르는 로동당 새시대로 빛나고있음을 더욱더 절감하였다.

문명의 새 거리를 확보하는 북반은 주인공들은 우리 인민을 위해 가장 어려운 나날에 무거운 짐을 기꺼이 웃으며 걸머진 고마운 어머니당의 진정인 사무치게 마쳐와 걱정을 금치 못하면서 우리 당, 우리 국가, 우리 세상이 제일이고 우리 정책이 제일이라고 한결같이 토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길에 모든 승리와 영광, 바라는 행복과 미래가 있다는 철리를 더욱 깊이 간직한 그들은 우리 국가의 부강번영을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투쟁에서 창조와 혁신의 기수, 위훈의 창조자가 될 열의에 충만되어있었다.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부흥강국의 새세상, 새시대를 확신성있게 당겨오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의지에 받들려 솟아난 송화거리리는 더욱 웅장화려하게 변모될 수도 평양의 래일과 더불어 위대한 김정은시대 인민사랑의 기념비로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